

2012년 총선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

박명호* 차홍석**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유형과 정치적 결과 - 심층분석 |
|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검토 | V. 결론 |
| III.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유형과 정치적 결과 - 기초분석 |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방식을 평가한 다음 공천유형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양당의 공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누리당은 하향식 공천,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을 주로 사용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경선 효과론(論)은 19대 총선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 경선의 상향식 공천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상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호남지역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하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영남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 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공천유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지역변수를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제어: 공천, 19대 총선, 정치적 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교신저자.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I. 서론

정당의 서로 다른 공천유형은 서로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까? 상향식 공천은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을 높일까? 반대로 하향식 공천은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을 낮출까? 경선과 야권연대를 통한 공천은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을 높일까? 그리고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은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을 낮출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공천은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물론 최근 정당의 여러 기능이 정당 이외의 기구나 집단에 의해 대체 또는 잠식당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최후의 기능’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공천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서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공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정당 공천에 대한 연구는 공천유형과 정치적 합의, 정당 공천제의 필요 여부 그리고 공천방식으로서의 여론조사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최준영 2012). 공천방식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였는데 상향식 공천으로 평가받은 17대 총선(전용주 2005)과 복잡한 공천형태로 알려진 18대 총선(박경미 2008)이 전형적 연구들이다.

나아가 정당의 공천방식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도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전용주 2005; 2010) 상향식으로 공천된 후보가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선이라는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전용주·공영철 2012).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경선과 비(非)경선의 단순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非)경선의 경우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을 포함하며, 새누리당은 하향식 공천이 상향식 공천보다 더 나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기존연구처럼 상향식 공천이 더 높은 득표율과 당선율을 기록했지만, 상향식 공천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강세지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19대

총선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19대 총선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논문은 양당의 다양한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기초분석과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공천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검토

정당의 공천은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중앙집권화의 정도다(Ranney 1981). 이는 ‘중앙당과 지방당 중 누가 후보지명의 권한을 가지느냐다.’ 즉 중앙집권화 여부 또는 정도는 공천 관련 결정의 권한이 중앙당의 개인 또는 회의체에 있느냐 아니면 지방의 최소단위의 개인 또는 회의체에 있느냐는 것이다(Norris 1996). 이는 ‘분권화 정도’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후보지명 주체가 중앙당, 지방당(黨) 또는 지역당(黨) 여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Rahat and Hazan 2001).

둘째, 관료화 정도다(Norris 1996). 이때 관료화는 ‘제도화’ 정도를 말한다. 관료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규칙과 절차가 분명한 ‘제도적’ 형태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미흡할수록 개인적 친분관계가 강조되는 ‘후원적’ 형태의 공천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리스는 중앙집권화와 관료화를 사용하여 “관료적이면서 중앙집권적인 공천, 관료적이면서 지방분권적인 공천, 후원적이면서 중앙집권적인 공천, 그리고 후원적이면서 지방분권적인 공천”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기도 했다.

셋째, 개방성 정도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천을 받고자 하는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즉 후보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당원이어야 하느냐 아니냐다. 둘째는 후보지명권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즉 공천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지도자 또는 지도부 또는 당원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총선공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예를 들면 전용주(2005)는 17대 총선의 공천 유형을 경선을 상향식 공천, 비(非)경선을 하향식 공천으로 구분하여 17대 총선은 이전의 총선과는 다르게 상향식 공천이 활성화된 선거라고 평가했다. 반면, 18대 총선은 17대와 달랐다. 박경미(2008)는 18대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은 포괄성과 배타성이 혼재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공천심사위원회는 비(非)선출기구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정당 밖의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일정 부분 포괄성을 확대한 측면도 있다는 의미에서 18대 총선은 복합적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아가 19대 총선 공천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00년 이후 총선공천 방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 또한 최근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상향식 공천이 주류를 이룬 17대 총선의 경우 상향식으로 공천된 후보가 당선 가능성도 높고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현직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비(非)현직 후보가 상향식으로 공천되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본선 전의 예비선거로서 후보의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전용주 2005). 이러한 발견은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고(전용주 2010), 최근에는 19대 총선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전용주 2012).

본 연구 또한 19대 총선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전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본 연구는 공천유형을 경선과 비(非)경선의 단순구분이 아니라 비(非)경선을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공천유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시도했다. 특히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은 일종의 맞춤형 공천으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승리에 기여한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여야 모두에게 득표율 상승과 당선 가능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야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의 위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야권 연대의 위력이 강력하게 발휘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공천방식의 지역적 특성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지역특성, 투표율, 후보자 수, 도시화 정도 그리고 현직유무 등의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사용한 교차분석의 단순분석을 넘어서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의 양자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19대 총선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진용주 2012)를 뛰어 넘는 것이다.

Ⅲ.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 - 기초분석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용한 공천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수후보 공천이다. 이는 공천신청을 한 예비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와 공천신청을 한 예비후보자들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전략공천이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경우와 전략지역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셋째, 경선이다. 경선은 해당지역에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일부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경선은 당원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당원과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넷째, 야권연대이다. 이는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후보 또는 타당후보를 공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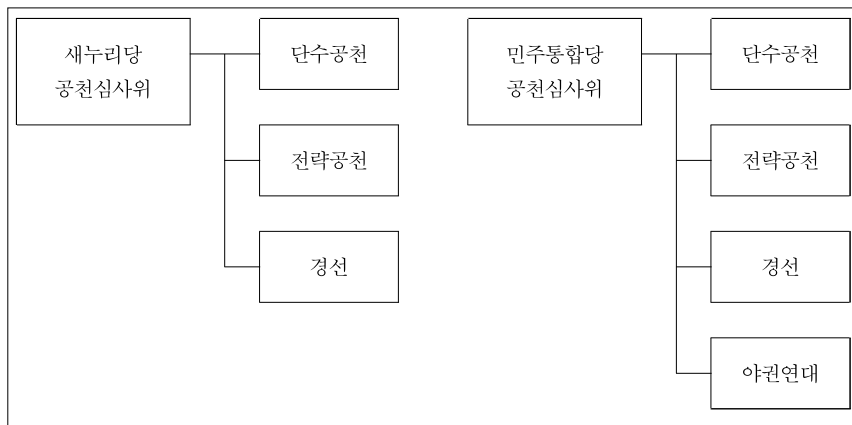
이와 같은 19대 총선 양당의 공천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첫째, 개방성 측면에서 양당의 공천은 복합적 모습을 보였다. 즉 후보 지명권자의 자격은 정당 지도부,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당원 그리고 일반 유권자 등으

로 구성되어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폐쇄적이었다. 반면 후보자의 자격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다. 둘째, 후보자의 선출방식 또한 다양했다. 즉 공천 후보자의 선정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방식부터 경선까지 실시되어 폐쇄적인 동시에 개방적인 방식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공천 230개 중 182곳을 단수 또는 전략 공천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실시한 곳은 48곳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공천 210개 중 경선과 야권연대 경선을 통해 122곳을 공천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88곳에서 단수 또는 전략공천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19대 총선 여야 공천은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관료화 그리고 개방성의 정도측면에서 18대 총선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당의 공천을 보면, 새누리당은 246개의 지역구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 13곳과 새누리당의 당 쇄신을 주장하며 탈당한 후보들의 지역구(서울 성북갑, 서울 관악갑) 2곳을 제외한 231곳에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제주을에 공천되었던 부상일 후보에 대한 공천이 금품제공의 혐의로 취소되면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총 230명이었다.

<그림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유형 구분



새누리당의 공천 유형을 분류하면, 단수공천은 130곳, 전략공천은 52곳, 경선은 48곳이다.¹⁾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의 공천은 상향식 공천, 즉 경선 비율이 높지 않았다. 더욱이 경선이 치러지더라도 공천을 신청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것이 아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지명한 후보로 한정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완벽한 상향식 공천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1> 새누리당 공천 유형

지역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총계	당선자수	득표율 (%)
서울	25	16	5	46	16	46.4
경기	29	10	13	52	21	46.0
인천	8	1	3	12	6	47.0
부산	10	6	2	18	16	48.6
울산	4	1	1	6	6	54.5
경남	8	2	6	16	14	51.6
대구	5	6	1	12	12	60.8
경북	5	3	7	15	15	60.8
광주	2			2	0	21.2
전남	7	1		8	0	4.9
전북	7			7	0	11.7
대전	2	2	2	6	3	36.0
충북	4	1	3	8	5	49.8
충남	7	1	2	10	4	37.9
강원	6	1	2	9	9	52.8
제주	1		1	2	0	35.2
세종		1		1	0	13.9
계	130	52	48	230	127	-

1) 경기남양주갑(송영선), 부산해운대구(하태경), 부산사하갑(문대성), 전남여수(유영남), 대전대덕(박성효). 이들 지역구는 전략공천이라는 언급은 없으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 지역으로 전략공천으로 분류하였다. 경선은 여론조사경선, 국민참여경선을 포함한다. 경선에는 4가지 특이 사례가 있다. 경기부천오정, 충북보은옥천영동, 충남보령서천 지역은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하여 공천이 확정되었다. 부산수영 지역구는 경선대상자인 박형준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방식에 불복하여 유재중 후보가 공천되었다.

<표 1>에 나타난 지역별 새누리당 공천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수공천과 전략공천 그리고 경선이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나,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당선가능성이 낮은 호남권에서는 경선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공천심사위원회도 이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유형도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흡사하다.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있다면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야권연대라는 선거연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하나의 독립적인 공천 유형으로 구분했다.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와 다른 야당의 후보들과의 경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를 야권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두 번의 과정을 통해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때 야권연대는 대부분 경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합의대로 총 79곳의 선거구에서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공천하고, 민주통합당은 16곳에서 무공천하거나 혹은 후보를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유의미한 양당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야권연대 경선지역 중 민주통합당이 승리한 곳 62곳과 무공천하거나 후보를 사퇴한 한 16곳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 전의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보면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227곳의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다. 227개의 지역구 중에 단수 및 전략공천의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진 곳은 137개의 지역구였고, 나머지 90곳의 지역구는 경선을 통해 공천이 이루어졌다. 야권연대를 포함한 최종적인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표 2>와 같다.

2) 야권연대 합의문에 명시된 경선지역 및 후보사퇴지역과 실제 나타난 경선 및 후보사퇴지역은 차이가 있다. 야권연대 합의문에는 경남 전지역(16)과 부산(2), 울산(3), 인천(5), 대구(1), 경북(2), 서울(21), 경기(23), 충북(1), 강원(3), 제주(2)의 총 79곳에서 경선을 치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남(15), 부산(2), 울산(3), 인천(4), 대구(2), 경북(1), 서울(20), 경기(23), 충북(1), 충남(3), 강원(3), 제주(2)의 79곳의 선거구에서 단일화 경선이 치러졌다. 후보사퇴지역의 경우는 야권연대 합의문에 나타난 곳에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지역구를 더한 16곳에서 민주통합당의 무공천 및 후보사퇴가 일어났다.

<표 2> 민주통합당의 공천유형

지역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야권연대	총계	당선자수	득표율(%)
서울	11	9	8	17	45	30	49.2
경기	11		15	19	45	29	49.6
인천	6	1		4	11	6	48.5
부산	11	3		2	16	2	40.2
울산			1	1	2	0	36.8
경남				9	9	1	34.7
대구	7	1	1	1	10	0	20.7
경북	9	2			11	0	13.0
광주	1		5		6	6	62.0
전남	3		8		11	10	57.5
전북			11		11	9	50.9
대전	3		2		5	3	42.1
충북	5		1	1	7	3	43.3
충남	3		3	3	9	3	34.7
강원		1	4	3	8	0	41.8
제주			1	2	3	3	50.1
세종		1			1	1	47.9
계	70	18	60	62	210	106	-

민주통합당은 총 246곳의 지역구 중에서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16곳의 지역구를 양보하였다. 또한 3곳에서는 무(無)공천하였으며, 17곳의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다른 정당에게 내주었다.³⁾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공천한 지역구는 최종적으로 210곳이다. 이를 네 가지의 공천유형으로 분류하면, 단

3)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연합한 선거연합이다. 양당은 새누리당과 1:1구도를 만들기 위해 상호 합의한 예외지역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를 야권연대지역으로 정했다. 민주통합당은 부산 영도·해운기장갑, 울산 남구울·동구, 인천 남구갑, 대구 달서울, 경북 경주·경산청도, 광주 서구울, 경기 파주울·성남중원·의정부울, 대전 대덕, 충남 홍성예산, 충북 충주,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16곳의 지역구를 양보했다. 야권연대에 따른 야권 단일후보 경선(여론조사 100%)에서 패배하여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낸 지역구는 서울 은평울·노원병·관악울, 경기 고양 덕양갑·여주양평가평·이천·안산 단원갑, 울산 북구·울주군, 경남 창원의창·창원성산·진주울·사천남해하동·거제·의령합천함안, 대구 북구울, 경북 포항북구의 17곳이다.

수공천 70곳, 전략공천 18곳, 경선 60곳, 야권연대 62곳에 이른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당내 경선과 야권연대의 상향식 공천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된다. 이때 경선에 의한 공천이 대부분 이루어진 곳은 호남지역이다. 새누리당이 영남권에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을 많이 했다면 민주통합당은 호남권에서 대부분 경선을 치른 것이다. 이는 호남지역에 대한 공천이 정치적 논란과 후폭풍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당의 서로 다른 공천유형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을까? <표 3>은 공천 유형 분류에 따른 지역구별 평균 득표율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선 방식의 공천이 득표율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 새누리당의 평균 득표율은 45.5%로 단수공천은 44.9%, 전략공천은 46.4%, 경선은 46.3%의 평균 득표율을 각각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평균 득표율은 44.2%로 단수공천은 41.9%, 전략공천은 37.4%, 경선은 47.7%, 그리고 야권연대는 평균 45.4%로 각각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전략공천을 한 지역구의 평균 득표율(37.4%)이 전체 평균 득표율(44.2%)에 크게 못 미친 반면 상향식 공천의 경선과 야권연대는 평균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공천유형별 득표율

정당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야권연대	계
새누리당	130(44.9)	52(46.4)	48(46.3)	-	230(45.5)
민주통합당	70(41.9)	18(37.4)	60(47.7)	62(45.4)	210(44.2)

<표 4> 공천유형별 당선인 수(당선율)

정당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야권연대	계
새누리당	69/130(53)	30/52(58)	28/48(48)	-	127/230(55)
민주통합당	34/70(49)	7/18(39)	34/60(57)	31/62(50)	106/210(50)

<표 4>는 공천 유형별 당선인 수와 당선율을 나타낸다. 먼저 새누리당은 230곳에서 공천을 하여 127곳에서 승리하였다. 130곳의 단수후보 공천

지역에서는 69명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52곳의 전략공천지역에서는 30명, 48곳의 경선 지역에서는 28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새누리당의 공천유형별 당선율을 보면 3가지 공천 유형 중 전체 당선율(55%) 이상을 기록한 것이 전략공천(58%)이 유일하다. 다음으로 단수공천으로 53%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경선방식 공천의 경우 48%의 당선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새누리당의 전략공천 또는 단수공천이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따른 것이다. 즉 새누리당은 영남 67개 선거구 중 50곳에서 전략 또는 단수공천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67석 중 63석을 획득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공천유형 중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이 전체 당선율보다 높거나 근접하게 나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새누리당 공천유형 중 당선율이 가장 낮은 것은 상향식 공천 지역구 48곳 중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또는 야권 단일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일 정도로 득표율의 상승을 가져왔으나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의 당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210곳 중에 106명의 당선자를 냈다. 그중 단수후보 공천 지역에서 34명, 전략공천 지역에서 7명, 경선을 통해 34명, 야권연대를 통해 31명의 당선자를 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유형별 당선율을 보면 경선방식의 공천이 가장 높은 당선율(59%)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야권연대의 공천이 50%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유형 중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주로 호남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 28개 선거구 중 24곳에서 경선을 통해 총선에 나설 후보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나아가 민주당과 야권이 우세를 보인 수도권에서도 101개의 지역구 중 63개 선거구에서 상향식 공천이 처리됐다. 따라서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민주당의 다른 공천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과 당선율을 기록한 것이다.

IV.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 - 심층분석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이상의 기초분석은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하향식 공천이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과 당선율을 기록한 것은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이 상대적으로 높은 당선율과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압도적 승리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천유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변수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천유형의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변수를 도입했다. 첫째, 도시화 정도이다. 여촌야도(與村野都)는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화 정도가 낮을수록 새누리당에 더 유리하고 민주당은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 수이다. 경쟁하는 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당선은 더 어려워지고 득표율 또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현직후보의 존재여부이다. 모든 선거에서 현직후보의 존재여부는 중요하다. 현직후보가 갖는 프리미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에서의 현직후보의 존재는 당선가능성을 보다 낮추고 득표율 또한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투표율이다. 높은 투표율은 흔히 야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표참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층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공천유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이다. 따라서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그리고 야권연대가 중요한 독립변수이다. 물론 야권연대는 민주당에 대한 분석에만 적용된다. 이들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에

대한 공천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화 정도, 후보자 수, 투표율, 현직후보의 유무 그리고 지역(영남과 호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beta_6 X_{6i} + \beta_7 X_{7i} + \epsilon_i$$

- Y_i : 득표율(%)/당선여부 X_1 : 공천유형(단수, 전략, 경선, 아권연대)
 X_2 : 도시화정도(1-4) X_3 : 후보자숫자(2-9)
 X_4 : 영남 X_5 : 호남
 X_6 : 투표율(%) X_7 : 현직의원출마여부(0-1)

<표 5> 새누리당 공천유형-득표율/당선여부 모델

	공천유형-득표율			공천유형-당선여부		
	상향식공천	단수공천	전략공천	상향식공천	단수공천	전략공천
도시화정도	0.98 (0.683)	0.64 (0.67)	0.64 (0.697)	0.72** (0.228)	0.67** (0.226)	0.65** (0.226)
투표율	-0.67 (0.153)	-0.02 (0.144)	-0.03 (0.148)	0.03 (0.043)	0.03 (0.042)	0.04 (0.043)
후보자숫자	-1.77*** (0.469)	-1.62*** (0.475)	-1.77*** (0.480)	0.04 (0.141)	0.07 (0.145)	0.04 (0.142)
영남	10.25*** (1.348)	10.24*** (1.347)	10.12*** (1.362)	3.10*** (0.557)	3.09*** (0.557)	3.08*** (0.557)
호남	-35.52*** (2.450)	-35.93*** (2.480)	-34.70*** (2.454)	-22.00 (9300.20)	-22.16 (9239.39)	-21.90 (9322.34)
현직유무	0.74 (1.235)	-0.18 (1.343)	0.95 (1.324)	-0.57 (0.355)	-0.76 (0.394)	-0.57 (0.375)
상향식공천	-3.34** (1.500)			-0.53 (0.429)		
단수공천		3.15* (1.357)			0.582 (0.383)	
전략공천			-0.550 (1.591)			-0.23 (0.441)
상수	53.66*** (7.929)	49.38*** (8.048)	51.73*** (8.085)	-2.56 (2.456)	-3.43 (2.455)	-3.26 (2.449)
R ²	0.616	0.616	0.607	0.355	0.357	0.351
N	230	230	230	230	230	230
-2Log우도				215.52	214.666	216.758

* p<0.05; ** p<0.01; *** p<0.001

새누리당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새누리당의 단수공천은 다른 유형의 공천과 달리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 제고에 기여했다. 이는 앞서 기초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하향식 공천의 단수공천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새누리당의 경선의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을 하락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단수와 전략공천의 하향식 공천방식이 새누리당의 득표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황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경선공천이 주로 열세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하지만 하향식 공천의 득표율 제고 효과는 당선 가능성 제고와 함께 영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하향식 공천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새누리당이 영남지역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넷째,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다.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도시화 정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뒤에서 보듯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과 마찬가지로다. 다섯째, 예상한 바와 같이 후보자 수가 많을수록 득표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민주당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양당 모두 후보자 수의 증가는 어떤 공천유형이든 득표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6>은 민주당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첫째, 공천유형 중 야권연대의 공천방식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예상과 달리 경선의 상향식 공천은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이 민주당의 경선공천과 야권연대의 경선공천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 것은 지역과 관련 있다. 즉 민주당 경선의 상향

식 공천이 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상향식 공천의 득표율 제고효과는 호남지역의 지역효과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표 6> 민주통합당 공천유형-득표율/당선여부 모델

	공천유형-득표율				공천유형-당선여부			
	상향식 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야권 연대	상향식 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야권 연대
도시화 정도	-3.81* ** (0.731)	-3.77* ** (0.726)	-4.03* ** (0.727)	-3.79* ** (0.720)	-0.67* * (0.234)	-0.73* * (0.236)	-0.76* * (0.243)	-0.73* * (0.237)
투표율	-0.43* * (0.154)	-0.43* * (0.154)	-0.42* * (0.152)	-0.44* * (0.153)	-0.09 (0.046)	-0.08 (0.046)	-0.08 (0.046)	-0.09* (0.046)
후보자 숫자	-3.09* ** (0.502)	-3.07* ** (0.502)	-3.04* ** (0.497)	-3.04* ** (0.498)	-0.08 (0.142)	-0.08 (0.145)	-0.08 (0.144)	-0.09 (0.145)
영남	-16.42* ** (1.592)	-16.95* ** (1.584)	-16.48* ** (1.521)	-16.34* ** (1.529)	-3.35* ** (0.665)	-3.50* ** (0.682)	-3.18* ** (0.641)	-3.11* ** (0.640)
호남	13.31** * (1.975)	13.57** * (1.963)	13.11** * (1.940)	14.40** * (2.004)	3.03*** (0.809)	3.10*** (0.821)	2.95*** (0.815)	3.07*** (0.836)
현직유무	1.73 (1.314)	1.69 (1.312)	1.58 (1.301)	1.64 (1.303)	0.43 (0.365)	0.40 (0.367)	0.41 (0.363)	0.42 (0.363)
상향식 공천	0.520 (1.337)				-0.56 (0.379)			
단수공천		1.29 (1.364)				0.843* (0.415)		
전략공천			-4.98* (2.228)				-0.48 (0.615)	
야권연대				2.77* (1.394)				0.285 (0.374)
상수	88.50** * (8.520)	86.15** * (8.502)	87.85** * (8.413)	86.31** * (8.418)	6.63** (2.628)	5.88** (2.599)	6.40** (2.626)	6.54*** (2.632)
R ²	0.576	0.577	0.585	0.583	0.343	0.350	0.338	0.338
N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Log 우도					202.74	200.65	204.42	204.43

* p<0.05; ** p<0.01; *** p<0.001

셋째, 민주당의 공천유형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야권연대의 공천이다. 야권연대의 경선공천은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여야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전략공천은 기대와 달리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상승시키기보다 오히려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민주당의 19대 총선참패가 공천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선거 후 분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19대 총선 공천 지역구 201개 중 18개 선거구에서만 전략공천을 실시했다. 결국 국민여론과 기대와는 반대되는 공천이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높은 투표율 또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높은 투표율의 역설(逆說)’로서 높은 투표율이 야당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표율의 역설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인되어 향후 야당의 지지자 동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V. 결론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방식을 분류하여 평가한 다음 공천유형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19대 총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방성과 폐쇄성 그리고 집권성과 분권성의 측면에서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양당의 공천과정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하향식 공천을 주로 사용한 반면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을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권력투쟁과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공천의 한국화(化) 또는 한국적 공천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회귀이다. 여당은 농촌에서 우세하고 야당은 도시에서 우세한 정치적 현상은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을 한동안 지배해

은 균열구조의 하나였다. 여촌야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대 총선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우리는 여촌야도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셋째,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 정치과정을 지배해온 지역주의는 공천유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19대 총선 민주당의 경우에서 보듯 경선의 상향식 공천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상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호남지역과 연관된 것이었다. 따라서 2004년 총선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경선의 긍정 효과론이 19대 총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이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선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것과 관련 있다. 수도권은 여당에 불리한 지역이어서 경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의 단수공천 또는 전략공천의 하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영남에서 하향식 공천이 오히려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 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도 결국은 지역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대 총선에서 경선의 상향식 공천이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어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단수 또는 전략공천의 하향식 공천이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하향식 공천이 어떤 지역에서 더 있었는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선 효과론(論)은 지역변수는 물론 다른 통제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pp. 41-63.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2호, pp. 217-236.
- 전용주·임성학·김석우 (2010).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OUGHTOPIA』. 제25집. pp. 127-156.
- 전용주·공영철(2012).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pp. 133-151.
- 최준영 (2012).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pp. 58-85.
- 한상익 (2012). “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선거구 경쟁조건, 선거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 pp. 55-77.
- Norris, P. & Leduc, L. & Niemi, R. G. (1996). *Comparing Democracies: Election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 London: Sage Publication Inc.
- Rahat, G. & Hazan, R. Y. (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ty Politics*. Vol. 7. No. 3, pp. 297-322.
- Ranney, A. (1981). “Candidate Selection” David Bulter, Howard R. Penniman and Austin Ranney. (eds.) *Democracy at the poll: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Schattschneider, E. E.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새누리, 강남권 대구등 전국 231곳 공천 마무리.” 『조선일보』. 2012년 3월 22일.
- “아내가 금품 제공 부상일 공천 취소.” 『한국일보』. 2012년 3월 22일.
- “총선, 야권연대·새누리 1대 1 대결로.” 『한국일보』. 2012년 3월 20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2014년 11월 22일 검색)
- 새누리당. <http://www.saenuriparty.kr>. (2014년 11월 22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23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of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ark, MyoungHo and Cha, Hong Seok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Dongguk Univ.)

This essay reviews how the two main parties nominated their candidates running for the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evalu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First, New Frontier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showed mixed picture when it came to candidate selections for the elections with NFP more depending on top-down style candidate selections while DUP on bottom-up style candidate selections. Second,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bottom-up styl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helps candidates earn more votes and their chances of being elected, this essay finds that the impact of bottom-up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is conditioned by the variable of regions. Specifically, DUP used the bottom-up typ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for the 2012 elections mainly in Honam region that has been strongholds for the party for the last 30 years.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requires us to incorporate all the possible variables influencing their relationships.

- Key words: Candidate Selection, 2012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olitical Outcomes, New Frontier Party, Democratic United Party